금주의 법구-〈법구경〉
마음은 항상 용감하게
생각은 항상 신중하게
행동은 항상 깨끗하게 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9월 2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19호 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재해보다 무서운 '무관심'… 사찰은 二重苦

지진·태풍 피해 경상지역 사찰들 어려움 호소

"지진이나 태풍보다 사람들의 무관심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이맘때 오는 수학여행 학생들과 관광객들은 물론 성지순례 오는 불자들의 발길도 딱 끊겼습니다. 사찰이 지역민심을 달래고자 위로행사를 마련했는데 이마저도 참석자들이 적네요."

분황사 정동열 사무장은 "2년 전 세월호 때나, 1년 전 메르스 때도 수학여행이 많이 취소됐지만 지금이 더 심각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경주와 울산지역 사찰들의 피해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성지순례나 자원봉사 캠페인과 같은 범불교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재해지역 고찰 '발길 뚝'

경주시에 따르면 9월 지진 이후 방문객이 57만명으로 예년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했다. 자원봉사를 제외하면 이 지역을 찾는 이들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경주 기림사 부주지 운암 스님은 "참배객이 예년 100명이었다면 지금은 10명 수준이다. 약 10분의 1 수준밖에 안된다. 지진과 함께 태풍에, 이젠 무관심까지 이어져 지역 일대의 근심이 깊다"고 토로했다.

경주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도 "관광객은 주간 수입으로 보면 50% 가량 감소했고 11월 중으로 문화재청에서 복구를 시작한다. 아마도 여진이 끝날때 쯤이면 정상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도 "지진에 이어 수해로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해 사찰 피해를 복구할 인력이 부족하다. 자체인력으로 조금씩하고 있다"며 "템플스테이도 올스톱 상태인데 11월 초 열 예정인 제14회 선무도대회 운영도 걱정"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지역민심 달래기 나선 사찰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찰들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불국사는 10월 7일 영산대재, 분황사가 8일 예술대재를 재난소멸 기원재 성격으로 진행했다.

분황사 정동열 사무장은 "매년 7만명 가까이 오던 수학여행객이 없다시피 해 관람료 수입만도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살림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각한 수해를 입은 통도사도 오히려 지역민들을 보살피는데 나서고 있다.

양산 통도사 교무국장 진응 스님은 "통도사도 일승교 유실 및 피해가 깊지만 양산 지역 피해가 더 심각하다. 지역사회는 그야말로 생존 문제"라며 "수해모금을 사찰에서 진행하고 있다. 1차적으로 언양지역 화재사고에 사회국장 스님이 가서 위로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주지 혜안)도 수해 발생 직후 울산 중구와 북구에 각각 1500만원의 수해복구 성금을 전한데 이어 10월 19일 울주군에도 수해 의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울산지원은 매일 주먹밥 등을 수해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보시하고 있다.

참배객 50% 감소 · 민심 '흉흉'
경주 골굴사 템플스테이 중단
정부 · 종단 관심은 문화재에만
소규모 사찰들 발만 동동 굴러

문화재에만 그친 불교계 관심

조계종의 경우 문화부 직원 등 조사단을 파견해 지난주 지진과 수해 사찰 피해 1차 조사를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문화재청과 지자체에 사찰 피해상황을 전달한 상황이다.

지역 사찰들은 이런 현실서 문화재 복구 외에도 자원봉사와 성금 모연 등 범불교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소규모 사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울산 정토사의 경우 축대가 무너져 1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고, 양산 내원사도 진입로가 유실돼 복구가 시급하지만 지자체는 관심조차 없는 상황이다.

경주 기림사 부주지 운암 스님은 "수해 피해로 인근 길이 유실돼 보수공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정부서 지원 받은 건 포크레인 하루 대여가 고작"이라며 "종단서도 달리 연락 받은 것은 없다.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경주 분황사 주지 성효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성지순례를 이 지역으로 오는 등 지역불교활성화에 물꼬를 터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노덕현 · 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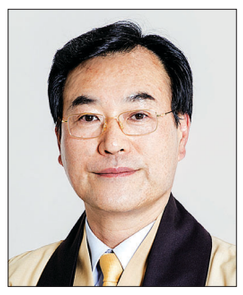
"환희의 극락세계가 이곳일세"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현조)의 2016특별전 '꿈꾸는 즐거움, 극락' 전이 10월 18일 개막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국보 제282호인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해 보물 14점과 다수의 불교문화재들이 12월 18일까지 전시된다.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주요내빈들이 전시된 성보를 살펴보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진각종 제12대 총인 회정 정사 추대

11월 1일부터 5년간 임기
30대 통리원장 회성 정사
내년 예산 190억 3천만원



회정 제12대 총인



회성 제 30대 통리원장

진각종 제 12대 총인에 회정 정사(현 통리원장)가 추대됐다.

인의회 의원(5명)과 통리원장, 종의회 의장, 현정원장, 교육원장 등으로 구성된 총인추대위원회는 10월 19일 총인원서 회의를 열고 전원 만장일치로 회정 정사를 총인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11월 1일부터 5년간이다.

총인은 진각종의 법통과 교법의 신성을 상징하고 심인법통(心印法統)을 승수하는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갖는다. 진각종은 총인 추대 추대법회를 11월 중 봉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각종 제 12대 총인으로 추대된 회정 정사는 제 27대 통리원장을 역임했으며, 제 8 · 9 · 11대 종의회 의원, 통리원 총무부장, 회당장학회 이사장 등 종단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탑주심인당 주교와 제 29대 통리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진각종 종의회(의장 덕일 정사)는 10월 20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4층 종의회 회의실서 제401회 정기종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통리원장 임기만료에 따른 제30대 통리원장 선거를 실시해 회성 정사(대구 시경심인당 주교)를 신임 통리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11월 1일부터 4년이다.

이번 통리원장 선거는 '통리원장은 인의회의 복수추천으로 종의회서 선출해 총인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의회서 복수추천을 받아 종의회서 선출했다. 인의회는 이날 오전 30대 통리원장 후보에 회성 정사와 덕정 정사(현 총무부장)를 복수 추천했다.

신임 통리원장 회성 정사는 당선 직후 인사말을 통해 "진각종이 70년을 맞아 3세대를 맞게 됐다. 종단 100년을 대비하는 임기가 시작된다"며 "선대 스승님들께서는 원력으로 종단을 이끄셨다면, 3세대 스승님들은 수행과 교리로 종단을 더욱 체계화시켜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회성 정사는 1991년 신락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불정심인당 주교, 능인심인당 주교를 지냈으며, 현재는 시경심인당 주교를 비롯해, 제 35대 현정원장과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 제14대 종의회 의원 등을 맡고 있다. 신임 통리원장 회성 정사 취임식도 11월 중 봉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종의회는 2017년 통리원, 교육원 등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심의해 통리원 144억4천100만 원, 교육원 7억7천700만 원 등 지난해 보다 9억여 원이 증가한 190억3천800만 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이어 진각복지재단 이사로 임기 만료되는 효운 정사 후임에 효운 정사와 선일 정사를 복수 추천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도심사찰서 만나는 현대불교미술 향연

봉은사, 10월 28~31일 서울템플아트페어 개최

거대도심 속 전통 · 불교문화를 오롯이 간직해나가는 서울 강남 봉은사. 각종 문화축제 등으로 시민과 호흡하는 봉은사가 이번엔 현대미술 작가들과 힘을 모아 새로운 문화전시를 연다.

봉은사(주지 원명)는 10월 28~31일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봉은사 · 불광사 · 조계사에서 '서울템플 아트페어(Seoul Temple Art Fair)'를 개최한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이 전시회는 현대 · 전통 · 불교미술작가 20여 명이 참여해 '달을 듣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형상을 소개한다.

'공(Sunyata)'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신용일 작가, 발굴이라는 특별한 조형방법으로 부처님과 보살 ·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도구를 조각하는 이영섭 작가, 역사 속 영웅들의 유추된 형상으로 낯섦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창조의 힘을 표현한 라오미 작가 등이 불교적 작품을 선보인다.

봉은사 측은 "시대의 사조 속에서 문사들의 학문이 교류하는 문화의 줄기를 형성했던 사찰의 공간성은 참여 작가들의 다채로운 조형방식과 신구를 관통하는 새로운 담론을 이어가게 한다"며 "경쟁사회에 노출된 수많은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속 깊이 위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전행사로는 28일 오후 5시 봉은사 선불당서 탭퍼 조커가 '행복한 탭댄스'를 공연한다. 또 복태와 한군의 힐링음악을 즐기는 '툇마루 콘서트'와 봉은사 다회의 '작가들과의 차 한 잔' 등도 열린다. 아울러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의 법문도 곁들여진다.

한편 이번 전시는 20여 참여작가들의 협동조합 '아트플랫폼 주인공(主人公)' 설립 이후 첫 프로젝트다. 주인공은 불교미술포럼 '주인공다방'을 통해 전통 · 불교미술의 중흥을 도모하며, 작가들이 주인이 되는 공유갤러리 설립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업체 와디즈(www.wadiz.kr)와 대중 참여를 모집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사 령

명)편집국 취재부 기자 **이 승 희**
2016년 10월 26일 부
이상 1명

불보살님의 자비와 가피를 함축하고 있는
진언(다라니) 사경!

사륙배판/112쪽 내외/각 5,000원 〈각권 판매〉



❶과거세부터 지어온 죄업을 참회하는 진언
❷업장을 소멸하는 진언
❸태교와 어린이를 위한 진언
❹학업성취를 위한 진언
❺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언
❻소원성취를 위한 진언
❼취업과 승진을 위한 진언
❽화목한 가정을 위한 진언
❾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부르는 진언
❿돌아가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⓫건강과 장수를 위한 진언
⓬재물을 부르는 진언
⓭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